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4호 현대불교 2008년 11월 5일(음력 10월 8일) 수요일 / 불기 2522년  
법공양 페이지

25

# 마음의 스위치를 누를 줄 알아야 오제를 지킬 수 있어!

### 계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지?

**질문:** 스님, 저의 집사람이 제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절에 다니더니 사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제가 절에 다니지 않으면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늙어서 퇴직하고 나면 24시간 함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는 마음공부가 너무 좋아서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할 텐데 저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정신적인 교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그러면서 퇴직하기 전에 절에도 다니고 공부해서 수계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절에는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몇 번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받으려면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 건지요?

**답변:** 수계에 관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역업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생동력 있게, 또 결립 없이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역업을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진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육통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통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하나만이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서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몸뚱이를 한 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려면 내 마음 자체를 읊조려야 이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그대로 잘하고 나간다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다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털구멍을 통해서 바로 나가지 조절하고 안에서 모자라는 한 작용을 해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관세음여래를

다. 즉 마음을 따라서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의식은 보살로 화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하시면 의식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무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 육신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르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들고 난다면 그것을 이롭게

나 내 탓이지 남의 탓을 하면 무엇하랴.’ 하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로 지해가 부풀어져서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편안하게 이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는 오계를 설하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전체 다섯 가지가 다 ‘마라’로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섣불리 튀어 놓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분수

행동해 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긴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벗어지지 만약에 말이나 이론으로 벗으려면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만날 말씀해 드리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데 입을 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열심히 하셔야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내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을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조상을 이끌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요다를 생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옷을 벗고 다시 나올 때에 차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공부는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천체 물리가 터져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반야줄을 쥐고 가고 있습니다. 우주와 직결돼 있는 줄을 반야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야줄을 쥐고 갈 줄 알면 요다에 죽어서도 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현보살들이 다 모셔갈 것입니다.

### 마음의 눈을 뜨고 싶어

**질문:** 며칠 전에 선원에서 개최한 법회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었지만 5층 법당에서부터 눈을 가리고 눈 뜬 이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갈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발목이 빠지나 않을까 염려해서 나뭇잎이나 깔을까 하는 걱정에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절에 다니다 하면서도 사업이 잘 풀리기만을 바랐고 내 가정과 친지가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근본을 믿지 못해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이는 눈과 생각으로서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살아온 저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생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물질에 꼬달리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공중에서 탐지하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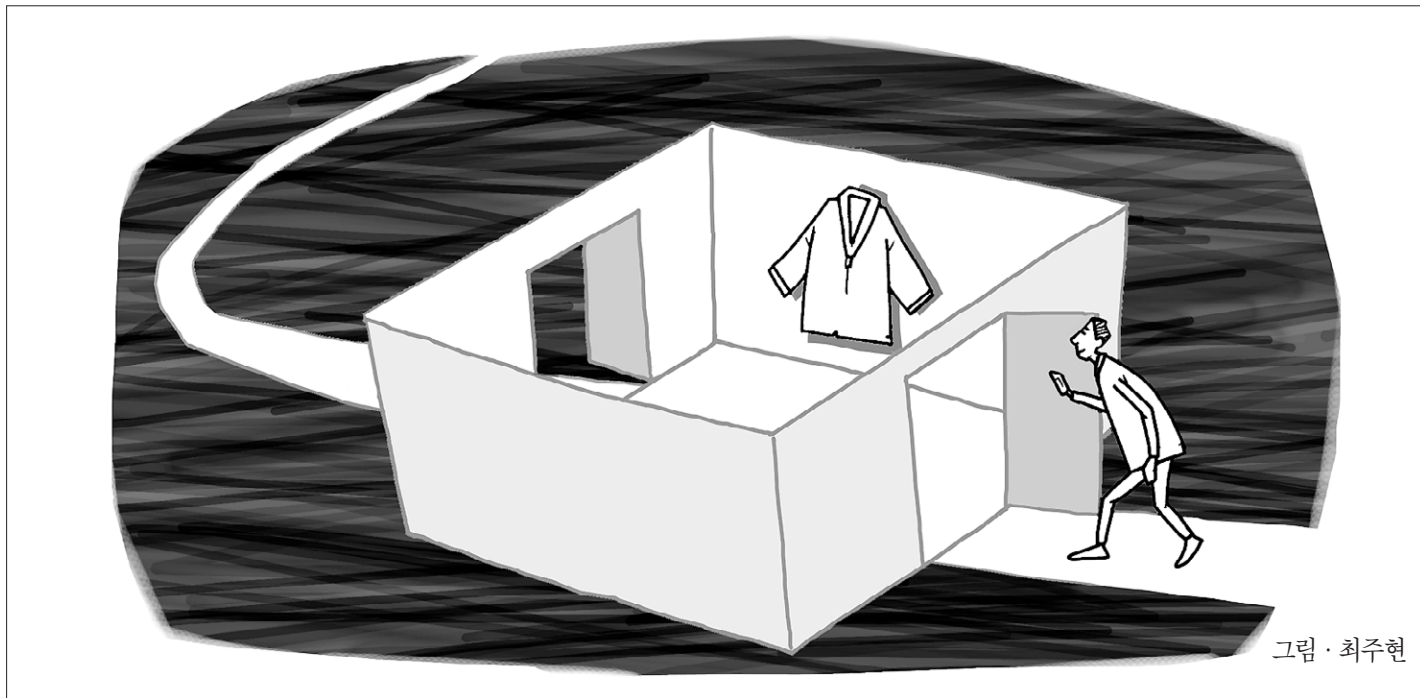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생명의 의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 보현신이란 얘 겁니다. 이게 전부 수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대로 이 몸속에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열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을 뿐입니다. 오계를 받는 데에 이것을 맡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게 돼 있으니, 내가 도둑질을 해야겠다 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 줍니다. 또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형제들 간에도 ‘내가 이 세상에 났을

를 알고 마셔라.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생을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 한다면,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주인 공에 맡기고 하면 그대로 두 마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살안 사람의 마음이나 죽는 고기의 마음이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고기는 고기의 허물을 벗고, 모습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쪽에는 그 고기의 살을 약으로 먹으니 병이 나아서 좋고,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스스로 남을 위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남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형상이고 부처님의 법도 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거를 돌 아나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기를 방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발전소에서 가설이 돼야 전력이 들어오죠, 가설이 돼야. 그러니까 가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줄과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야요. 가설이 돼 있어야요.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니, 즉 우리들의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단 얘깁니다. 전기 가설은 다 돼 있는데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으니 이게 불이 생긴 가야 들어오니까? 그걸 누를 줄을 모르고 누르는 거를 해 놓지도 않았으니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를 줄을 알아야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뎡하라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압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요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종문 3종정보 **특한**

##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진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대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 114회 3000배 용맹정진

강력한 대공정의 밝은 기운! 찬란한 부처님 가피! 소원성취 저절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림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 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경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정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승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결실돌린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날 짜 : 2008년 11월 8일(토) 저녁 9시 ~ 2008년 11월 9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를 : 동참비 2만원 (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흰색바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땅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발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이렛배, 엉덩이, 꼬리뼈, 차기우신분(오리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절사 법왕정사**  
수행중심교육도량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